

사람과 기술, 대덕과 사람

DAEDUCK Story

소식지 대덕스토리 2월호

Vol. 42



발행일 2023년 2월 13일

Publish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230
인사총무팀 교육홍보그룹

Editor 채지혜 프로

T.031-8040-0643 F.031-8040-8082

| CEO 메시지
| 슬기로운 대덕생활

| 대덕뉴스 & 추천도서
| 건강한 내일

| 칼럼_물의 날, 소중한 물

디자인 귀기울

www.daeduc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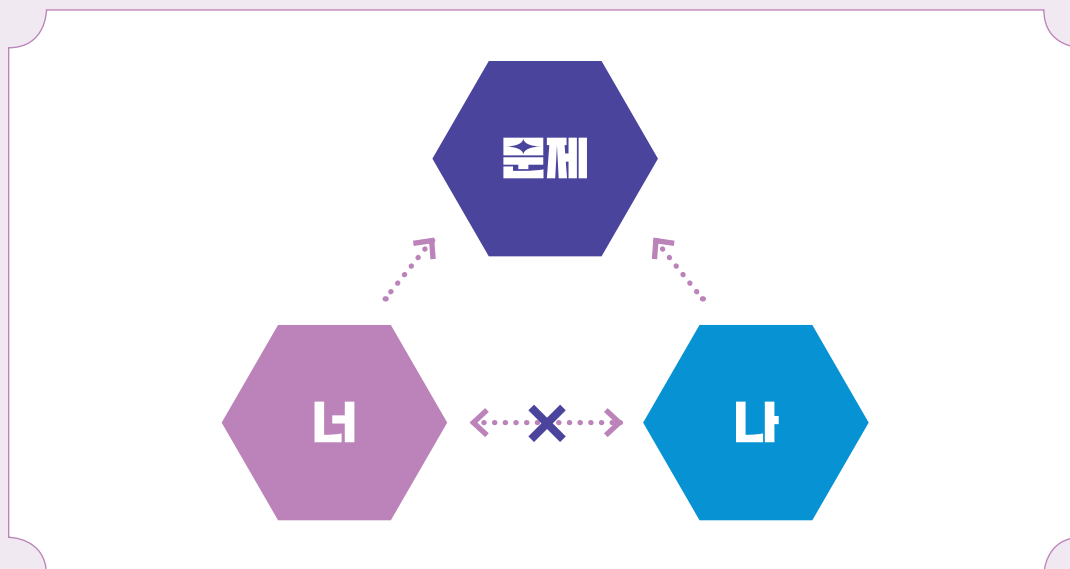
2월 德談會

정기회의를 안하는 회사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1 회의 대신에
시스템의 Data를
더 자세히 확인
(접속 수 증가)
- 2 회의 대신에
간단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문서작성이 필요
- 3 협업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팀즈,
이메일 소통을 한다
(팀즈 우선)
- 4 3현주의로 현장을
더 많이 가고,
더 많은 사람과
대면소통을 한다
- 5 회의 필요시에는
10인 이내로 진행
(학습회, 고객
회의는 예외)

‘문제’라는 단어

- 1 수율저하, 원가
경쟁력 취약, 불량
발생, 신뢰성 불량,
설비고장은 문제
- 2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
- 3 문제의식을 갖고
기술적인 대응,
아이디어 도출을
하는 습관 필요
- 4 문제는 공통의 책임,
개인의 책임은 적다
(문제노출에
적극적인 태도인)
- 5 문제점을 먼저 명시
하면 해결과제가
나타나게 되고
목표 설정이 수월



NEWS

우리회사, CPR 체험장 운영



우리회사 B1 3층 대강당에 CPR(심폐소생술) 체험장이 운영된다.

CPR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인원을 우선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예정이며, 교육대상과 일정을 2월 중으로 안전환경그룹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CPR은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 심장이 정지되어 순환이 되지 않은 채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가 손상되기 시작하는데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서 체세동과 병원 치료가 이루어 질 때까지 중단 없이 계속 되어야 환자의 생존률을 높일 수 있다.

최근 안전 수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CPR 교육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업무용 법인차량 확대



기능조직 운영으로 인한 센터별 업무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임직원 편의 개선을 위해 법인차량을 추가 확보했다. 차량의 출고 지연으로 우선 필요한 사업장인 B1, B4, M1에 선 조치를 완료했으며, 추후 출고시('24년 2월 예정), 전 사업장 노후 차량 매각 후 배치 예정이다.

업무용 법인차량의 확대에 임직원의 신속한 업무 수행과 이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추천도서

추천 이유



남상현 저
포르체
2022. 12. 14.

이미 지구 평균 온도는 1도 올랐다

< 반드시 다가올 미래 >

기후 비상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기후 변화 필수 상식

2022년 구글 국내 검색어 1위, '기후 변화'. 우리는 이미 이상 기온과 날씨 변화만으로 지구의 상태가 심각하게 달라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저자는 기후, 빙하, 해양 등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초 용어부터 설명하여 어린이가 읽어도 될 만큼 이해하기 쉽게 기후 변화를 알려준다. 전 세계적으로 진화한 기후 재앙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접근하고 있다. 더 이상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와 기후 위기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모두 함께 지구를 살리는 답을 찾아야 한다.

| 칼럼_물의 날, 소중한 물

세계 물의 날 맞이,
물에 대한 궁금증

오늘의



내일의



*참고 자료 — 물의 미래(에릭 오르세나 저), 지구촌 물 분쟁(EBS), 플랜 코리아-플랜 뉴스,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스마트폰을 쓸 때도 물이 필요해!(크리스티나 슈타인 라인 저), 5분 과학탐구-물의 기원(EBS), 사이언스 타임즈 등

영국의 한 시인은 말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사랑 없이 살아왔지만, 그 누구도 물 없이 살 수는 없었다”. 인간의 몸은 약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 평균 약 2ℓ의 물을 땀, 소변 등으로 배출한다. 지구를 구성하고, 우리 몸을 이루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水). 우리는 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물에 대한 지식을 모아 보았다.



물, 우리가 몰랐던 사실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질량은 그대로지만 부피가 줄어든다. 에너지를 빼앗긴 입자들의 운동이 둔해지며 입자 사이의 거리가 줄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은 반대로 고체, 즉 얼음으로 변했을 때의 부피가 액체일 때보다 크다. 이는 물의 독특한 성질 때문인데, 물은 온도가 내려가면 입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한다. 이 결합으로 인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액체일 때보다 멀어져 부피가 늘어난다.

따라서 얼음은 액체인 물보다 밀도가 낮고, 물 위에서 뜰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지구 표면은 약 70%의 물과 10%의 빙하로 이루어져 있다. 즉, 약 80%에 달하는 면적이 물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 97%는 바닷물이고, 담수는 3% 남짓인데 그 중 2%는 빙하다. 지표에 가득한 물 중 인류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은 고작 1% 정도인 것이다.



물, 도대체 얼마나 쓸까

내가 쓰는 물, 하루에 얼마나 될까? 성인의 1일 물 섭취 권장량은 약 2ℓ, 큰 생수병 하나 정도이다. 이조차도 하루에 다 마시기엔 힘들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음용 외에 요리, 세척 등에 쓰이는 모든 물을 합치면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인당 일 평균 물 사용량은 무려 295ℓ로, 전 국민이 하루에 생수 100병 넘는 물을 쓰는 셈이다.

이는 독일(150ℓ)이나 덴마크(188ℓ), 호주(224ℓ)보다 많지만 일본(311ℓ), 미국(378ℓ)보다는 적다.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양일 뿐이다. 런던대의 토니 앨런 교수가 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가상수'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을 의미하는 말이다.

A4 용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0ℓ의 물이, 커피 한 잔에는 약 140ℓ의 물이, 돼지고기 1kg와 청바지 한 벌을 생산하는 데에는 각각 약 11,000ℓ의 물이 필요하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만드는 데에도 원료 채굴, 가공, 조립과 완성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쓰인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돌아가게 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에도 물은 빠짐없이 들어간다. 자, 오늘 자신이 입고, 먹고, 마시고, 사용한 것들을 떠올려 보자. 그리고 계산해 보자. 나는 오늘 얼마만큼의 물을 썼을까.



지구를 덮친 물 부족 현상

전 지구적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파격적인 발명도 있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마신 물 한 잔이 화제가 됐다. 그 원료가 인분이었기 때문이다.

1,000℃의 고온으로 인분 안에 포함되어 있던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 수증기를 냉각해 깨끗한 식수로 바꾸는 폐수 처리 장치인 '윌니 프로세서'는 하루에 10만 명의 배설물을 처리해 최대 86만ℓ의 물과 250kw의 전기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배설물이 약 75%의 수분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오래 전부터 꾸준히 환경 오염과 물 부족 등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빌 게이츠는 윌니 프로세서에 후원을 결정하고,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직접 장치에서 정수되어 나온 물을 맛보며 홍보에 나섰다. 물을 마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맛이 좋았다. 이 물을 매일 마실 의향도 있다. 안전하니까."



대한민국의 물, 괜찮은 것일까

우리나라는 풍부한 수원과 잘 정비된 상수도 설비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 또한 약 1,270mm로 세계 평균인 813mm를 웃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강수량의 74%가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되고, 국토의 65%가 산악 지형이라 많은 수자원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는 여름철 마른 장마와 겨울철 가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심각한 봄 가뭄이 이어져 제한 급수를 시행하는 지역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안정한 물 사정은 기후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해가 갈수록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물을 흥청망청 쓰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쓴 물은 정수 처리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쓰이는 에너지와 비용이 적지 않고 그러한 노력에도 영영 깨끗하게 되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더불어 물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지구 물 환경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량이나 상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많은 수자원, 즉 '가상수'가 투입되는데, 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하면 그만큼의 물을 수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높은 한국은 중국이나 스리랑카, 일본, 네덜란드 등에 이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상수 수입국이다. 즉, 우리가 물뿐 아니라 음식과 물건, 에너지 등을 절약하려는 노력으로도 세계 물 부족 사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보탬 수 있다는 뜻이다.

2023년,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 새로 바뀌는 제도들 알아보기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만 나이' 사용 아닐까. 우리 자신은 그대로인데 왜인지 조금 젊어지는 것 같은 느낌에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만 나이 외에도 올해부터 바뀌는 것들을 모아 한 눈에 정리해 본다.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였는데, '세는 나이'란 태어날 때부터 1세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는 방식이다.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계산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나는 것이다. 만 나이가 적용되어도 입학, 병역, 음주 등의 기준은 당분간 그대로 적용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하던 '유통기한'은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인 '소비기한'이 적용되고 있다.

EU 등 많은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소비기한을 도입하면서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페 및 편의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지난해 11월 24일 환경부가 카페, 편의점 등의 소규모 소매점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됐다. 다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기 때문에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의 패널티는 없다. 우리나라보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탈플라스틱 프로젝트는 한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EU는 지난해 11월 '유럽 그린딜'의 한 축인 순환경제실행계획의 하나로 포장과 포장재 폐기물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강력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2030년부터 EU가입국의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 식기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과일과 채소 등 신선식품의 일회용 포장, 호텔에서 제공되는 소형 샴푸병이 규제 대상이 된다.



추억의 체크 교복과의 이별

'교복'하면 떠오르는 체크무늬 스커트나 체크무늬 자켓이 사라진다. 전국 200여 곳에 달하는 학교의 교복이었던 체크무늬가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상표권 침해 주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버버리는 베이지색 바탕에 검은 선과 흰 선, 빨간 선이 교차하는 체크무늬에 대해 지난 2019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작년 5월, 버버리 측과 협의의 하에 해당 체크무늬를 교복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00여 개 중·고교가 올해 신입생부터 교복 디자인을 변경했고, 디자인 변경을 확정하지 못한 일부 학교도 2024년부터 새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한 습관 7가지



1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실 것

물을 마시는 것은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습관 중 하나이다. 물을 마셔주면 체내 수분 보충이 되며, 소화를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히 할 뿐만 아니라 피부도 좋아지게 된다. 물은 식간에 마시는 것을 추천하며, 레몬 즙을 약간 넣어주면 더 좋다.

2 아침 한 시간 동안 SNS, 이메일, 문자를 피할 것

휴대폰과 컴퓨터에 온종일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기를 옆에 두고 잠을 자거나 일어나자마자 소셜미디어, 이메일, 문자 등을 확인하는 것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는다. 일어나자마자 한 시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피하도록 하자. 하다 보면 이 습관이 당신을 더 행복하고, 집중되고, 깨끗한 마음가짐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3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하루를 위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행복해지고 의욕이 충만해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여유 시간에 무언가 특별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한 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세 가지 이상 특별한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좋은 걸 이루게 될 것이다.

4 밖으로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실 것

밖으로 나가서 맑은 공기로 가슴을 채우자. 겨우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아침에 기분도 더 좋아지게 해준다. 앞마당으로 나가거나 그냥 길거리에 나가도 된다. 이렇게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정말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게 된다.

5 몸을 움직이고 운동할 것

아침마다 철저한 운동을 따라 할 필요는 없다. 단지 몸을 약간 움직여 주고 가볍게 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하루를 위해 몸을 깨워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 그저 걷거나, 달리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잠시 탈 수 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원하는 대로 춤을 춰도 좋다. 물론 음악이 긍정적이고 행복하며,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6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할 것

요새는 많은 사람이 바쁘거나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른다. 하지만 아침 식사는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다. 하루 전 체를 위한 에너지를 줄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온종일 활동을 하는 동안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 준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식사에 단백질, 항산화제, 약간의 지방, 곡물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달걀, 과일, 요거트, 오트밀(귀리), 통밀빵 등이 있다.

7 긍정적인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하루를 즐기면서 해야 하는 일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응원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다.

하루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살아 있는 느낌, 넘치는 활력, 최고의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이 모든 건강한 습관들을 되새기고 기억하자. 이 방법들을 따라 하면 당신의 매일이 더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하루의 모든 순간을 즐기게 될 것이다. 날마다 긍정적인 태도로 마주하고, 자신감을 느끼며 미소를 짓자.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과도 공유할 수 있다.

Quiz

42호 퀴즈

사진 속 물건은 무엇일까요?



사진 속 물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확대한 사진입니다. 일하고 있는 사무실, 내 자리 주변, 집 어딘가에도 있을 수 있는 물건이죠. 기지개도 한번 켜 겸, 스트레칭도 한번 할 겸, 주변을 둘러봐 주세요.

매일 그 곳에 있어서 존재조차 깜빡하고 있던 물건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컵세트(2p)를 드립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사보담당자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스토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취미소개, 도서후기 등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보 담당자 : 교육홍보그룹 채지혜 프로(coco@daeduck.com)

**41호
당첨자**
FCB 개발1그룹 진보람 프로
MLB 개발그룹 이도윤 프로
FCB YE그룹 이희승 프로
BGA QC-GATE 노채린 기사
FC QC-GATE 신혜선 기사

**41호
퀴즈 정답 :**
기니피그

